

호남권 5개 SW중심대학 협력체계 구축

전남대·전북대 등 5개 대학 MOU
공동개발·교육·해외연수 등 협력

전남대 등 호남권 5개 SW중심대학이 대학 간 경계를 넘어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과 ICT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질적 공조에 나섰다.

2일 전남대에 따르면 최근 전남대는 호남권 5개 SW중심대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지원하는 ‘SW중심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전남대학교 AI융합대학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전남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전북대학교, 조선대학교 각 대학 SW중심대학사업단장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및 공유, 공동 교육과정 운영,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및 컨퍼런스 개최, 해외연수 프로그램 연계 등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MOU를 통해 5개 대학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SW중심대학 사업 운영을 통해 첨단 ICT 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 교육과정 운영



호남권 5개 SW중심대학 관계자들이 최근 ‘SW중심대학 사업’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남대 제공)

과 글로벌 프로그램 참여 확대는 지역 대학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업단장 간 MOU 서명 후, 실무자 간담회 추진 결과 보고와 함께 차기 협의회 운영 대책 및 공동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 간 협력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교육·연구·산학연 연계를 아우르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광주시와 RISE사업 협약 체결

지역혁신 선도 공동비전 공유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가 최근 광주시청에서 열린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협약식’에서 광주시(시장 강기정)와 지역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공동 비전을 재차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선대학교는 올해 총 사업비 163억원(컨소시엄 예산 포함)을 투입해 지자체-대학 간 전략적 연계 강화,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정주형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대학-지역사회 자원공유를 통한 정주인재 양성 등 핵심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선대는 광주시의 6대 전략

산업 분야 메디헬스케어, 스마트부리산업, 미래형 모빌리티, 에너지, 인공지능, 문화콘텐츠에서 대학의 전문성과 산업 연계 역량을 결합해, RISE 체계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는 선도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산업계,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혁신모델을 구현하고, 지역 내 고용·정주·경제 활성화를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역혁신의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RISE 사업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인프라, 인재, 연구 역량을 지역사회와 적극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지역혁신의 핵심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강기정 시장(좌)과 김춘성 총장(우)

가지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신대 산림조경학과, 산림청 ‘정원드림프로젝트’ 최종 선정

동신대는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주관하는 ‘2025 정원드림프로젝트’ 전주권역에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정원드림 프로젝트는 서울, 대전, 세종, 평택, 전주 등 총 5개 권역에서 진행되며, 권역별로 5개 팀씩 전국 총 25개 팀(125명)을 선발했다. 정원 분야 전공대학생으로 구성된 각 팀에는 전문 정원작가가 매칭돼 설계부터 시공, 유지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밀착 멘토링이 제공된다.

동신대 산림조경학과는 ‘에덴의 결(Eden's Resolve)’이라는 제목의 정원 아이디어로 도시

유휴공간의 생태적 전환을 제안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회복을 핵심 가치로 삼아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수관 식재, 빗물정원 도입을 통한 물순환 회복, 수분 매개 곤충과 자생식물 중심의 생태 구조 설계를 담고 있다. 박현석, 노건웅, 김태겸, 조형준, 정소이(산림조경과 3년)씨 등 5명이 팀을 이뤄 생태적 정원 설계의 가치를 구현했다.

이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정원 작가와 함께 실습정원을 기획·조성하는 전 과정을 체험하며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교과 과정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시

공, 정원 관리 등 정원 작가의 실무 노하우를 직접 배우는 좋은 기회였다고 학생들은 입을 모았다.

이번 프로젝트의 총괄팀장을 맡은 박현석씨는 “공원이 단순한 조경 공간을 넘어 시민과 자연을 잇는 연결점이라는 점을 알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정원 조성하고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지역 공동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 녹지 모델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동신대 김민희 산림조경학과장은 “이번 참여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정원문화 확산과 생태 기반의 교육·실무 중심 정원 설계 역량을 전국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광주대, 몽골 지방정부 4곳과 상호협력협약

우수인재 기관 간 교류 모색
‘글로벌 교육 파트너십’ 구축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최근 몽골 지방정부 4곳과 우수인재 교류 및 기관 간 교류 협력을 약속하는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2일 광주대에 따르면 광주대 행정관 6층 회의실에서 열린 몽골 지방정부 4곳과의 협약식에는 광주대 김동진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과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투머르후 국무장관, 던트고비바이막 만달고비시 바트 아르길 시장을 비롯한 4개 지방정부 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교육 파트너십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대와 몽골 4개 지방정부(던트고비 만달고비시, 수흐바타르 바른 우르트시, 헨티 킵기시, 도르노드 초이발산시)는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 공동 운영 프로그램(상호학위 인정 2+2, 3+1), 한국어 교육·기타 공동 교육 프로그램, 단기연수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상호 방문, 교육 등 협력 교류 활동과 여름캠프 및 세종학당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방식의 정기적인 학생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수, 연구원 및 직원간 교류 등 상호합의한 사항에 대해 굳건한 협력을 지속해 한국과 몽골의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우수 유학생 유치와 취업 기회 확대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동진 총장은 “몽골의 국정을 이끌고 각 지방정부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귀빈들의 무게감 있는 방문에 무한한 신뢰를 표한다”라며 “몽골이 고려가는 국가의 청사진 속에 광주대가 우선순위의 교육·산업·문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또 “소중한 만남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협력으로 보답하고, 조만간 몽골을 방문해 기관 간 우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투머르후 국무장관은 “협약을 계기로 몽골 청년들에게 더 넓고 깊은 한국 유학생활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가 크다”라며 “K팝과 한국의 아이돌을 좋아해 한국을 선택하는 몽골 청년들이 광주대의 선진교육 환경 속에서 신기술과 문화를 익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무척 감사하다”라고 화답했다.

몽골 지방정부 대표단은 협약식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학교법인 호심학원 송숙남 이사장과 차담회를 가진 뒤 호심기념도서관 내에 마련된 창설자 호심 김인근 박사 기념관, 기업가정신센터, 도서관 1층 라운지 시설을 함께 둘러보며 대학의 역사와 교육환경 등을 소개받았다. 송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몽골 유학생의 정주 여건 개선과 굳건한 교육 파트너십 구축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계약 서류 간소화…효율성 제고

9종 서식 ‘계약 이행 서약서’로 통합

전남교육청이 행정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 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분청과 산하기관(각급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업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할 서류가 법령 제·개정으로 계속 증가해 교육현장과 계약업체에 행정적 부담이 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계약관리 분과 청렴 TF 협의회’를 열어 계약 서류 간소화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달 12~20일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계약 서류 간소화 방안’에 따라 계약 상대방이 제출하는 ▲수의계약 각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등 9종(입찰의 경우 5종)의 서식이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하나로 통합된다.

또 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확인서 등 전산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서면 제출을 생략하도록 개선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계약 업무를 보다 간편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학교와 기관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노관열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이번 계약 서류 간소화는 계약 문화 전반의 신뢰·효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소통을 통해 공정한 계약 행정과 청렴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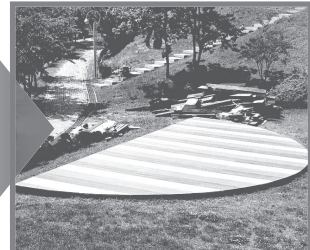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0900100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